

# 인물 설화에서 살펴 본 대구·경북의 문화원류\*

- 민족혼을 진작한 원효·일연·최제우의 설화를 중심으로 -

강 은 해\*\*

<목 차>

1. 머리말
2. 변경인의 자각
  - 1) 변경지대의 인물
  - 2) 공동체 관계와 '우리'에 대한 인식
3. 벌거숭이 인간의 존엄과 신이(神異)
  - 1) 민생의 발견
  - 2) 재래신앙에 대한 존중과 인간 존재의 신이(神異)
4. 맺음말

## 【요 약】

이 글은 대구·경북 사람들이 구사하는 지방어가 형성된 배경이 있듯, 경쟁관계에서 보다 협동관계에 있을 때 더 신명을 내고 일을 도모하며 비밀을 갖기보다 벽을 헐고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지역 문화의 큰 줄기를 소급하여 따라가 보고자한 과정을 담고 있다. 그 방법론의 근거로 대구·경북권에서 태어나 다른 지방에 유례가 없을 만큼 큰 정신의 스승으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을 추적, 원효, 일연, 최제우를 그 전범으로 삼아 설화와 행장, 비문을 중심으로 정신사의 원류를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

살펴보았다.

오늘날 대구·경북의 문화적 토양은 바로 이러한 세 스승이 보여준 정신사의 전통이 면면히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과 인간존재에 대한 존중과 외경을 터득하고 있는 정신사의 흐름이 우리 지역 속에서 형성된 전통은 앞으로 대구·경북이 어디로 나아가야할 지 그 좌표를 밝혀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1. 머리말

지역공동체는 생활 중심의 공간이다. 그 현장에서는 지역어의 독특한 화법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오늘날 현대미디어도 지역 언어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방언은 투박하면서 묵직하고, 끝을 자르지 않고 여운을 두며, 호흡이 진중하여 다른 지역의 억양과 강세와 현저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언어의 특징이 형성되고 변화해온 요인은 무엇일까. 두서없는 이러한 의문은 곧 대구·경북의 문화적 특성이 무엇일까라는 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세계화 시대의 지방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2)</sup>

‘하위 문학’의 여러 양상 가운데 한국에서는 지방문학이 특히 긴요하다. 소수민족이나 특수집단이 독자적인 문학을 간직하지 않고, 동질적인 민족이 지방에 따라 다른 삶을 이룩하면서 문학의 전통을 각기 다르게

1) 조동일, 『지방문학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송성대, 「제주민의 海民정신」,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파피루스 1996, 제12판 199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 창간호 (대구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1) 등 참조.

가꾸어온 지방문학이 긴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sup>3)</sup>

같은 민족이 지방에 따라 다른 화법으로 이야기하면서 문학의 전통도 각기 다르게 가꾸어 왔다면 이제는 그 한정된 지역 공간이 스스로 주조해온 문화의 줄기가 어떻게 맥락을 이루고 있는지 더욱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심의 일단을 대구·경북 지역으로 축소하고 그 안에서 살필 수 있는 문화의 고리를 찾아 지방학으로서 대구·경북학의 한 부분을 보완해 보고자 시작되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특성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의해 보수적이고 주의주장과 고집이 강하다든가 남의 일에 관여를 한다든가 등 관점의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장단점의 역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반면에 오랜 시간을 겪어 내려가 보면 의리가 있고 소탈하며 서로 협동하는 인간관계에서 신명을 낸다고들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은 곧 한 개 동전의 양면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면적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호·불호의 평가 속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정신이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도모하기보다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원하고, 소탈해서 다른 사람과 격의 없이 지내기를 좋아하고, 경쟁하기보다 협동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변덕부리지 않으니까 보수적이고, 더불어 지내고 싶은 관심이 커서 간섭으로까지 비쳐지게 되는 것이 ‘공동체 정신’의 양면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문명의 확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 기계를 통해 정보를 정리하며 개개인이 그가 지닌 비밀번호처럼 비밀을 간직하고 소리나지 않게 저마다 경쟁하기에 바쁘다. 또한 사회·정치·문화 분야에서 하루도 쉴 새 없이 양극화와 갈등, 대립, 편 가르기라는 어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

2) 조동일, 위의 책, 2면.

여기에 이르면 어떤 양면성을 지니는 대구·경북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거나 한 특성이라고 할 ‘함께’의 정신 ‘공동체 구현의 정신’을 그리움으로 되살려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대구·경북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 전통의 유대는 어디서 비롯되어 수대에 걸쳐 이어져 오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문학의 영역 한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일단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설화자료를 중심으로 그 실마리를 열어볼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인물설화는 허구인양 사실을 말해주고 또한 과장 뒤에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가 바로 말하지 못하는 진실도 설화 속에는 큰 밑그림이 되어 자리잡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통합의 정신사적 모델을 찾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신라의 원효, 고려의 일연, 조선의 최제우이다. 시기적으로 7세기, 13세기, 19세기 각각 6세기를 사이에 두고 활동하면서 상층과 하층의 문화를 통합하여 민족문화의 큰 산맥을 뚜렷이 세우는 전통을 이어주었다.

물론 이 세 사람으로서 대구·경북 문화의 원류를 모두 짚어볼 수는 없다. 대구·경북 문화는 영남 문화의 다층성을 인식하면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는 이러한 다층성의 실체에 접근해 가기 위해 실마리를 여는 작업으로 이 세 인물의 설화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인물은 상층 지식인이지만 또한 신분상 변경지대의 인물이기도 하다. 원효는 신라의 육두품이며, 일연은 한미한 중인에 가까웠고, 최제우는 서자였다. 세 인물의 경우를 보면 큰 자각은 변경지대의 지식인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진실을 깨달을 정도이다. 경산과 경주, 대구 인근 경북지방인인 세 인물의 행적과 설화를 되새기면서 대구·경북 인근 지역에 뿌리내린 공동체의 통합정신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전통을 찾아 상하의 문화를 합쳐 대립을 극복하는 대구·경북 미래의 좌표로 제고하는데 이 연구의 목표가 있다.

## 2. 변경인의 자각

### 1) 변경지대의 인물

원효·일연·최제우 세 인물은 일생에 걸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천하를 주유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흐르는 길 위에서 체험하되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세 인물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의 길 떠나기는 신분상의 구속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정신면으로는 상층 지식인의 반열에 들어가지만 실제 현실에서 당면하는 지체는 고귀하지 않았다.

#### (1) 원 효

원효의 속성은 설(薛)씨, 아버지는 신라관직의 11등급이었던 내말 담날(乃末談捺)이고 압량군에서 태어났다.

성사 원효의 속성은 설씨, 그 조부는 잉피공 또는 적대공이라고도 한다. 지금 적대연 곁에 그의 사당이 있다. 아버지는 내말 담날이다. 원효사는 압량군 남쪽 불지촌의 북쪽에 있는 울곡의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다. 불지촌이란 마을 이름은 발지촌이라 쓰기도 한다. 사라수의 유래에 대해선 세속에 전하는 바로선 이러하다.

즉 원효사의 집이 본래 울곡의 서남쪽에 있었다. 그 어머니가 원효사를 잉태, 만삭이 되어 마침 그 골짜기, 즉 울곡의 밤나무 아래를 지나다 홀연 해산을 했다. 너무 급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남편의 옷을 나무에다 걸어 두고 거기서 지냈다. 그래서 그 밤나무를 사라수라고 부

르게 된 것이다.<sup>4)</sup>

삼국유사에서 원효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일연이다. 일연은 원효와 같은 압량군,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같은 고향 출신이다. 일연은 <원효전기>에서 다른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할 때와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그가 수도를 위해 사방으로 구름가는 듯한 행적의 시말과 불교의 흥통에 남긴 성대한 업적은 모두 당나라 승전과 그의 전기에 실렸으니 여기선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고 단지 이 나라에서 전하는 한 두 가지 특이한 일만을 적어 두려 한다.<sup>5)</sup>

『삼국유사』는 압량군 불지촌의 밤골마을 사라수 나무와 원효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한 두 가지 특이한 일 중 첫째로 내세운다. 원효의 어머니는 이 마을 밤나무 아래를 지나다 해산끼를 느끼고 남편의 옷을 나뭇가지에 걸어 누울 자리를 마련하였다. 원효의 탄생은 마굿간 억센 짚단 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상황과 버금간다. 그래서 이후 그 밤나무를 ‘사라수’라고 부르는데 그 밤나무의 열매 또한 다른 것들과 달라 사라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효가 거친 길, 밤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전혀 귀하게 돌보아지지 않은 검박한 출생을 의미한다. 가장 민중적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한 생명의 모습이다. 그런데 원효 출생 이후 그 나무의 이름은 사라수라 불리게 된다. 사라수는 부처님이 열반한 곳에 서있었다는 나무다. 일연은 부처님이 이 세상과 연을 마친 나무 밑에서 원효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검박한 출생의 조건이

4) 일연, 『삼국유사』, 의해 제5 <원효불기>, 이동환 역주 (삼중당, 1993, 중판), 180면.

5) 『삼국유사』, <원효불기>, 182면.

동시에 가장 불도로서 고귀한 탄생이라는 역설이 그 속에는 담겨있다. 그래서 <원효불기>의 서두에서 일연은 원효를 성사(聖師)라고 칭하지 않았던가.

아버지는 육두품, 신라관직의 11등급 관직으로 세상의 중앙에 나설 신분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밤나무 아래 노변에서 고된 출산을 하였으니 원효는 정신적 신분으로는 지식인이면서 육신적으로는 검박한 서민의 원형으로 상층과 하층을 잇는 변경지대의 인물이다.

일연은 원효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고장에서 전승되는 원효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익숙하게 체험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승려의 전기를 기술할 때 참고하던 <승전> 등 자료를 넘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자료들을 특이한 일이라며 자신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원효의 어머니는 별뚝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원효사를 잉태했는데, 해산 때에는 오색구름이 땅을 뒤덮었다<sup>6)</sup>고 한다. 고귀한 탄생이지만 신분적으로 변경지대에 속한 원효이기에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치유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일연은 원효를 주저없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 (2) 일 연

일연은 1206년, 경상북도 장산군(章山郡), 오늘날의 경산에서 태어났다.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다. 집안과 지역이 다 중앙과는 거리가 먼 변방인이다. 일연의 행적은 그의 비문에서 살필 수 있다.

첫 이름은 견명(見明), 승려로서 처음 이름은 회연(晦然), 속성은 김 씨이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살았는데, 아홉 살에 해양(海陽), 지금의 광주 무량사(無量寺)로 가서 의탁하였다. 그 곳에서 수학한 뒤, 일연이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는 14살 나이로, 설악산 진전사(陳田

6) 『삼국유사』, <원효불기>, 181-182면.

寺)에 가서 삭발하고 스님이 되었다.

당시 진전사는 신라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아홉 선문 즉,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가지산파(迦智山派) 소속이었다. 여기서 왕명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산문이 결정된 셈이다. 뒷날까지 일연의 비문에 ‘가지산하보각국존(迦智山下普覺國尊)’이라는 이름이 따르게 된 연유가 여기에 의한다. 22살, 승과에 합격한 일연은 몽고 전란기의 혼미한 정치 상황 속에서 수도 생활에 전념, 고향에서 가까운 포산(包山) 곧 비슬산(毘瑟山)의 여러 절을 순회하였다. 그의 나이 31세, 일연이 홀연 깨달음의 경지(豁然有悟)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이 산의 무주암(無住庵)에서였다.

일연선사가 41세 되던 해 당시 재신인 정안(鄭晏)은 남해 정림사(定林寺)로 그를 초청한다. 이후 15년의 세월을 일연은 몽고군의 포화가 미치지 않은 이곳에서 머무른다. 최씨 무인정권이 물러나고 고려의 조정이 대몽고 항전을 포기할 때까지가 이즈음에 해당한다. 몽고와 강화가 성립되고 원종 즉위 2년(1261), 일연은 55세의 나이로 국왕의 부름을 받아 임시 수도 강화로 가서 선월사(禪月寺)에 거주하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 일연의 고요하던 내적 수련은 국가의 현실적 부름 앞에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sup>7)</sup>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선월사에 머무르기 3년, 여러 번 요청하여 향한 다음 곳은 영일의 오어사(吾魚寺)이다. 이 지역에서 머문 10여년, 일연은 왕명으로 법회를 주재하고 조정에 청하여 인흥사 등 사찰을 중흥·보수한다. 1281년, 일연은 나이 78세에 국사로 책봉되고 고려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큰 스승이 된다. 84세 입적할 때까지, 만년에 경상도 군위의 인각사(麟角寺)에 거처하면서 편찬한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바를

7) 김태영, 「일연의 생애와 사상」,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8, 2판) III-4-5 참조.



보여주고 격려한 산 증거물이다.

한미한 집안에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구차한 삶을 의탁키 위해 들어간 불문의 길, 그것은 뛰어난 신동이 가난과 미미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었다. 일연이 처한 변경지대의 신분은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일찍이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 동인이 되었다.

### (3) 최제우

최제우는 과거 급제를 평생 목표로 삼았던 최옥의 서자 아들이다. 어머니는 과부의 몸으로 최옥을 만나 인연을 맺고 최제우를 낳는다. 경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수운선생 내력담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양인에게 신령한 꿈과 영감이 있었다고 한다.

근암 선생님이 수운 선생님의 아바님인데 용담에 요거마 한 집이 있거등요. 요거만 한 집이 하나 있는데, 선비는 고요한 데 가 공부해요. 거 가 공부로 근암 선생님이 과계할라고 공부를 해가, 가 가 아께강 같애. 과계하로 가 마 또 낙뽕이 뻬뽕고, 초시 열두 분에 한 분도 과계를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일 짝에 본 장개간 마느래도 있었던 갑데. 거드러 공부를 하다가, 책상이 오래, 근암 선생님이 사르르 잼이 드니, 꿈에 하늘에 둥둥 떠가주고, 땅아 내리오디 자기 앞에 들와요. 근암 선생이 거 초려 삼간에 거 공부를 하시다가이 이 마 잼이 와서 책상에 의지해서. 그렇더니라도 그저 내가 이 얘기를 들은대로 하면, 책상에 의지로 해가주고, 이래 잼이 소로시 드이께네, 하하 하늘에 고요한 하늘에 달이 둥 떴는 거로 망월로 하고 치다보이까, 거 달이 수르르 넘어 오미 자기 이 품 속으로 사르르 들오드라니도. 깜짝 놀래가 깨이 까데, 그 달로보고 놀래가 깨이 꿈인데.

고 지금에 금척요, 서면요. 금축 한씨, 금축 한씨가 애이고 청주 한씨데. 금축은 곡산 한씨데. 거 수운 선생 어마님은 청주 한씨라니도. 금척서 와서 글치, 청주 한씨라 근데. 이 가장이 일찍이 세상 베리고 친정살이로 와 가주고 있다가여, 일찍이 초저녁에 잠이 살푼 와가 누부이, 달이 둥 떠가주고 꿈 속에 우물에, 문 앞이 우물인데, 우물에 들성해 가,

꿈 속에 우물에 가가 발로 이래 망기를 하이까네, 달이 마 그게 품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래 들와가주 깜짝 놀래가주 깨이께 꿈이라. 꿈인데.

다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얌전하게 있던 덕네가여 마 집이 있기 싫고, 천리라도 걸어야 될따 싶으그덩요. 그래서 금척 서면 거 금축 동네에서 이 구미산 저 쪽으로 올라올라 크면 수목이 장성하고, 그 까시가 그만치 있는데, 부인이 밤에 그 한씨 부인이 밤에 태산으로 그럭저럭 그 옥을 보고 넘어오이, 이 옷이 전신에 까시에 다 뜯기고, 온 몸에 유혈이 다 나고. 그래도 그저 정신없이 자꾸 쥐뜯고 걸어 넘어오이, 저 산을 넘어오이께네, 용담에 근암 선생 공부하시는 데 불이 뻥하그덩.

그 불로 보고 마 참 죽을 판 살 판 찾아와가, 문 앞에 와가, 옛날 법에 차마 문을 문 열고, 오기는 와가주골라 부시력 부스럭 그고, 이래 있는데 사람이 기침이 있어. 선생님이 그 꿈을 꾸고 생각크 이까네, 이상하다 싶어, 꿈을 이해를 하고 빠이 앓아 있으께, 밖에 사람 기척이 있는 것 같아서, 자죽 소리가 있고, 거 사람 기침이 있어. 그래 문을 열어, 그래,

“사람이가, 짐승이가?”

꼬. 아무래도 사람 곁에가주,

“짐승 애이고, 사람이라고.”

“사람이 이 짚은 곳에 왜 왔소?”

크이까네,

“오다가 보이, 이렇게 됐니도.”

“그러면, 방아 들으시라고요.”

들오라 카그덩. 들와가주골라. 그 날 저녁에 서로 이야기하고, 아매 부부 동행이 됐든 모양이라고요.<sup>8)</sup>

아버지가 이미 두 번 상처한 뒤의 일로 가문은 이미 양자로서 대를 잇고 그 손자가 최제우보다 훨씬 연장자인 상황이었다. 부모가 모두 달이 품 안에 드는 태몽을 얻은 고귀한 출생이었지만 최제우는 ‘호부 호형’하지 못한 홍길동과 같은 처지에 직면한다.

8)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7-1 (경북 경주 월성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곡면 설화103, 297-298면.

그래 수운 선생님을 나서가 그래 노실 고배에 마주 보거든 집이. 외금강 내금강이 먼지는 물씨도. 의금강 내금강이 둘러싸고, 구미산이 세 번 울면 애가 소리가 났다크대요. 거 수운 선생이 나시는 그 소리, 애기 소리가 나가, 그래가주, 이 선생님이 자라나가주고 하 참 아바님을 아바님이라고 몬하고, 그랬는갑대요. 아바님을 아바님이라고 몬하고, 형을 형이라고 몬하고요. 이렇게 머시 해 놓이, 주류천하 땡기며 마음도 많이 탄식이 나시고.<sup>9)</sup>

더욱이 오늘날 구비전승자들이 안타까워할 만치 아버지 최옥은 다니는 곳마다 최제우가 서자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한다.

근암공이 인자 수운 선생 아바시 근암공이 장 교제처에 가면, 그저 “우리 아라” 카면 그거 할긴데, 장 말하는, 항상 말하는기 서자라. “내, 이건 내 서자, 내 서자다.” 또 여여 어디 가서 인사하면, 그저 “내 아라” 캐도 싫건 되긴데, “이건, 이건 내 서자다.” 그 땐, 그 땐 또 그래야 되고.<sup>10)</sup>

최제우가 태어난 1824(순조 24)년에서 돌아간 1864(고종 1)년 사이는 안 밖으로 중세의 통치질서가 흔들리는 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안으로는 안동 김씨 세도정권이 이씨 왕실을 흔들고, 밖으로는 서양 여러 나라가 차츰 침투의 손길을 뻗어오는 중이었다.

아버지 최옥은 이러한 내외적 상황에서 번번이 과거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인사이다. 과거를 포기하지 않고 또한 포기할 수 없는 몰락양반 최옥이 처한 상황은 다음 설화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 어른 함자가 옥자 아이가. 단자로 옥자지? (청중 : 예 맞니도.) 그 말이 있지요. 아홉 번 가도, 과거를 모했지요. (청중 : 정수동이는 일곱

9) 위의 책, 설화, 103-299면.

10) 위의 책, 현곡면설화 28, 67면.

번 갔는데, 두 번 더 갔는 택이다.) 그래, 한강 담울에(강뚝에) 떡 나오이, 어떤 노고(老姑) 늙은이가 빨래를 하고 앉았거든. 한강 담울에 와가 땅을 치고, 담배를 한 대 푸우고 있다 말이다. 이래 있이이, 웬 사람이 과게하로 가서 과게 묻하고 거 와 운다 말이다. 이러이, 그 노모 그 늙은이가여,

“에이고, 영남에 있는 최옥씨는 아홉 번 과게 묻해도 암(아무) 말도 안하고 가는데, 과게를 묻했다고 운다고. 대장부가.”

이 짝아서(이 쪽에서) 가만 이 얘기를 들어보이, ‘내 이름을 어에 저 노인이 안다 말이고? 내 과게 한 장, 시장(試場) 한 장 한 것보다 모하지 않다고.’ 그래 마 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sup>11)</sup>

이 이야기는 최옥이 과거에 거듭 낙방하였고 그 사실이 온 데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빨래하던 할미도 알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애깃거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옥은 그런 할미까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데서 과거한 것에 못지않은 명예심을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최제우의 고향 경북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 일대에서는 아버지 최옥에 대한 이야기가 변성한데 그 핵심은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민중적 관심이 ‘빨래하는 할미’의 생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야기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하고 듣고 다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허황된 것이다. 그러나 허황된 이야기가 허황되지 않은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허황되지 않은 뜻을 찾아낸다면, 이야기는 역사나 사상에 관한 문헌 이상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sup>12)</sup>

『동학경전』이나 『천도교경전』에서 최제우를 마호메드나 예수에 버금가는 성인으로 숭앙한다면 최제우가 태어나고 득도한 고향의 구전이야기는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민중이 기다리는 영웅으로 이해되고 있다.

11) 위의 책, 현곡면설화 123, 322면.

12)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119면

최제우는 서자이다. 그는 아버지의 가문을 잇지도 못하였다. 아버지는 실패한 과거라도 계속 꿈을 가지고 도전하였지만 최제우는 그런 꿈조차도 허용되지 않았고 가난은 그의 대에 이르러 한층 심각해졌다. 한때 객지로 나가 장사꾼 노릇을 하면서 헛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을 괴로워하였다.

그러나 최제우는 아버지대의 몰락양반 처지도 이을 수 없는 경제적 가난과 천대받는 서자라는 변경지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중심과 주변을 통합하고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는 방책으로 동학을 일으킬 수 있었다.

## 2) 공동체 관계와 '우리'에 대한 인식

원효, 일연, 최제우는 그들이 처한 변경지대의 신분으로 인해 나를 극복하고 깨뜨리게 된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변경지대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의식이 각성된 세계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신분의 예속이 장애가 되어 평생을 전전긍긍하고 한을 쌓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원효, 일연, 최제우는 당대 사회에서 중심부도 아니고 주변부도 아닌 중간부에 처한 자신들의 신분을 오히려 통찰에 이르는 계기로 삼는다. 여기에 이들 세 인물이 범인과 다른 탁월한 슬기로움이 있다. 그 경지는 이들 세 인물이 '나'라는 존재의 욕구를 허심하게 비울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이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보게 하고 사람살이의 근본이치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원효는 불도의 중간부에 위치하면서 귀족불교와 민중불교를 통합하였다. 뽕나무 농사짓는 늙은이며 독짓는 용기장이에다 원숭이 무리들까지 모두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으니, 원

효의 교화가 크다고 일연은 말한다.<sup>13)</sup>

의상대사가 중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철저하게 제자들과 어울려 불도를 수행한 것에 비추면 원효의 태도는 그와 정반대이다. 원효는 중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고승이면서도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의 원리와 불교의 교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상하층이 두루 친근하게 불교를 느끼도록 도왔다.

원효는 '말을 못하던 사복(蛇福不言)<sup>14)</sup>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함께 장례를 도운다. 사복은 한 과부가 남편 없이 잉태하여 낳은 아이인데 12살이 되어서도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해 사람들이 뱀아이(蛇童)라 부르던 미천한 아이였다.

어느날 그 어머니가 죽었다. 그 때 원효대사는 고선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원효가 사동을 보고 맞아 배례했더니, 사복은 답례도 하지 않은 채, 원효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와 내가 지난 날에 경을 신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다. 같이 장사지내는 것이 어떠한가?”

원효는 그러자고 허락하고, 함께 사복의 집으로 왔다 사복은 원효로 하여금 포살수제를 하게 했다. 원효가 시체 앞에 임하여 빌었다.

나지 말지어다, 그 죽음 괴롭도다.

죽지 말지어다, 그 태어남 괴롭도다.

원효의사를 듣고 사복은 말했다.

“말이 번거롭다.”

그래서 고쳐서 다시 빌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괴롭도다.

둘이서 상여를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말했다.

13) 『삼국유사』, <원효불기>.

14) 위의 책, <사복불언>.

“지혜 있는 호랑이를 지혜숲 속에 장사지냄이 그 아니 마땅한가!”  
사복은 계송을 지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도 그와 같은 이 있어  
연화장세에 들려고 하네.

계송을 마치고 띠풀을 뽑아 내자 그 아래에 한 세계가 열려 있어 명량하고 청허하며 칠보 난간에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 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은 시체를 지고 함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땅은 이내 아물어졌다. 원효는 돌아왔다.<sup>15)</sup>

사복은 걷지도 못하던 사생아에 불과한 소년이다. 어머니마저 돌아갔으니 사복의 정신세계가 아무리 고양되어있다 해도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아이일 뿐이다. 이런 소년의 처지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원효이다.

「감통」편 <광덕과 엄장>조에서 화전 경작민이었던 엄장이 광덕의 처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고 찾아가는 사람 또한 원효이다.

엄장은 부끄러워 물러나왔다. 그리고 곧 원효법사의 거처로 나아가 득도의 요체를 간절히 요구했다.

원효법사는 정관법을 지어 지도했다. 엄장은 이에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뉘우쳐 자책하며 일념으로 관을 닦았다. 그리하여 서방으로 갔다. 정관법은 「원효법사 본진」과 「해동승진」속에 있다.<sup>16)</sup>

원효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격차를 개의치 않고 찾아갈 수 있는 한 친구였던 것이다. 일연은 항상 낮은 곳에서 사

15) 위의 책, <사복불언>.

16) 위의 책, <광덕엄장>.

람들과 동고동락했던 원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원효를 이끌어 준 혜공과 원효의 만남을 삼국유사에 기록함으로써 일연은 우리로 하여금 원효의 진면목을 여러 면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삶, 민중과 더불어 소중한 진솔한 민족적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만년에 편찬한 『삼국유사』는 민중전승을 소중한 민족문화로 재인식하고 상하문화를 민족문화로 새롭게 합치는 노력의 결실이다. 일연은 50대에 이르러 이미 불교 산문(山門)의 통합과 나라의 호국을 위한 불교계통의 통합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50대에 찬술한 중편조동오위(中編曹洞五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일연의 비문에 이름만 비쳐 있었고 그의 저술 목록으로만 알았지 전혀 책의 내용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 일본 교토(京都)대학 도서관에서 그 중간본이 발견되어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었다.

책의 서문에서 일연은 이 책을 쓰는 것이 평소 꿈꾸어 오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51세때 윤산(輪山) 길상암(吉祥庵)에 머물며 한가한 시간을 얻어 비로소 저술하게 되었는데 5년이 걸려 완성하게 되었다. 윤산은 지금 경상도 남해이다. 조동종은 중국에서 동산양개(洞山良介)와 조산본적(曹山本寂)이 스승과 제자가 되어 성립한 선종의 일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보법선사(普法禪師) 지겸(志謙 1144-1229년)이 송나라에서 전한 조동종본에 견해를 더하여 두 권 저서를 냈는데, 일연의 저술보다 30년 앞서의 일이다. 일연은 이것을 보고 자신의 견해와 보충할 바를 보태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조동종은 일연의 산문(山門)인 가지산문과 관계가 멀다. 신라말 고려초에 성립된 선종의 아홉 종파 가운데 수미산문(須彌山門)에 가깝다고 한다. 일연의 가지산문이 가장 먼저 생겼고 수미산문은 가장 마지막으로 황해도 해주의 수미산 광조사에서 열렸다. 고려시대는 선종 승려들이 속한 산문을 왕명없이 바꿀 수 없는 엄격한 내규가 있었다 한다.<sup>17)</sup>



그렇다면 일연은 왜 산문이 다른 조동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하는 일을 꿈꾸던 일이라고까지 말하였던 것일까? 불교학자 정병조는 일연의 원융적·포괄적 태도가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일연이 오위설을 군신(君臣)과의 묘합(妙合)으로 이해한 점은 그의 독특한 민족 의식의 발로이다. 즉 『삼국유사』가 신이를 강조하여 몽고에 억눌린 한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웠다면, 이 책을 통하여 군신의 단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일연은 다른 산문의 경전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저술을 한 것과 함께 다른 산문의 고승을 스승으로 삼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일연은 그의 나이 56세 때 강화도를 떠난다. 비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통(中統) 신유(辛酉)년, 임금의 부름을 받고 강화 서울로 가서 선월사(禪月寺)에 주석하고 당을 열어(開堂) 멀리 목우화상(牧牛和尚)을 이었다.<sup>19)</sup>

여기서 목우화상을 이었다는 대목은 주목을 요한다. 목우화상은 수선사(修禪寺)의 개창자 지눌(知訥)이다. 13세기, 지눌은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수선사를 만들어 고려불교를 일신하고자 결사운동을 벌였다. 수선사는 길고 긴 대몽항쟁 기간 중 승병들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호국하면서 당대 최고의 불교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일연은 바로 이러한 목우화상의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목우화상 지눌은 강원도 영월 법흥사, 사자산문(師子山門) 출신이

17) 고운기, 『삼국유사』2, 「일연 혼미속의 출구」, (현암사, 2002), 728-729면 참조.

18) 정병조, 『보살도의 숨결』, (대원정사, 1992.), 『한국 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대원정사, 1995) 일연편 참조.

19) 고운기, 위의 책, 730-738면 참조.

니 일연과 계보를 달리한다. 앞서 다른 산문의 경전을 해석하고, 이어서 다른 산문의 스승을 계승하는 일을 일연이 평소 꿈꾸어 왔으니 일연은 계파와 명분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뿔뿔이 갈라져 있는 종교나 사상의 관념보다 대몽전란기의 혼란 속에서 민족공동체가 어떻게 뭉쳐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을 이러한 통합정신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폈듯, 일연은 『삼국유사』의 서술에서 특히 원효에게 강한 애착을 보여주었다. 일연은 스스로 원효의 계승과 과당없는 원용과 포용의 길을 따르고, 유사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그 함께 하는 공동체의 통합정신이 곧 우리 민족의 전통이자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최제우가 보여준 의식의 각성도 역시 원효와 일연이 나아갔던 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최제우는 아버지 최옥의 고민에 찬 생애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몰락 사대부의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보다 더한 곤경에 처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방황하고 천하를 주유하는 방랑생활을 오랜 동안 겪기도 한다.

그러나 최제우는 그 방황기간 중 세상을 두루 겪으며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회는 1811년 홍경래란, 1862년 진주민란 등 지속적으로 민란이 계속되면서 중세사회의 질서를 청산하고<sup>20)</sup> 근대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민중의 요구가 커다란 힘으로 부상하는 때였다. 최제우는 이러한 와중에서 민중의 각성을 동학으로 집약, 민족사의 위기를 타개하는 활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동학은 서학에 맞서 상하층의 문화를 민족문화로 새롭게 합치자는 정신이었고 앞서의 실학사상을 한 단계 더 비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동학은 우리 시대가 처한 역사적 전환의 필연성을 매개로 이미 그 씨앗이 여물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20)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115면.

동학문헌에서는 최제우가 한울님을 만나 종교적으로 득도한 위인으로 숭고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최제우는 “유도 불도 누친련의 운이 역시 ㄷㅎ션가 빈천한 백성이 스스로 자각하면서 새로운 도를 일으켜야 한다”<sup>21)</sup>고 민중이 맡은 역할을 환기하였다.

최제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 아버지가 누리던 지위도 이룰 수 없는 처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아버지 이래의 몰락양반 환상을 떨칠 수 있었다. 그래서 앓은 자리의 고민을 깨고 떨쳐 나아서 행동으로 옮기고 많은 지지자를 모아 분열된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었던 것이다. 최제우가 일으킨 동학은 계급사회로 고착되기 이전 별거승이 인간 자체가 지닌 무한한 힘에 대한 발견이다. 그는 상하의 계급에 가려 잃어버린 하층의 힘을 민족정신의 힘으로 새롭게 합치는 사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원효와 일연의 공동체의식, 통합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 3. 별거승이 인간의 존엄과 신이(神異)

원효, 일연, 최제우는 모두 단정, 근엄, 엄숙, 장엄을 일삼는 기계적인 인간형식을 거부한다. 그들의 통찰은 책상물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찍이 길을 떠나 천하를 주유하면서 서민생활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인간생활의 원형과 민족의 전통적 기반을 확인하였다.

#### 1) 민생의 발견

일연은 원효에게서 특기할 일로 요석공주와의 결연을 손꼽고, 『삼국유사』 <원효불기>에서 서술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중국, 송나라 『송고승전』의 <원효전기>는 원효의 파계에 관한 일체 언급을 피하

21) <교훈가>, 『동학사상자료집』1, 64면.

는데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주목을 요한다.

<원효>	<원효>
출신(薛氏, 동해 상주사람)	(○) 출신(薛氏)과 탄생과정
어린 시절의 불법 입문	(○) 출가
(×)	원효의 고향과 태몽
(×)	독학수행
기행(奇行)	(○) 기행(奇行)
왕비의 득병	(×)
당나라 구병사신과견	(×)
용왕의 금강삼매경 하사	(×)
원효법사의 해설	(×)
왕비의 완쾌	(×)
대안의 성자만남	(×)
원효의 강의와 감동	(×)
원효의 기이한 성품	(×)
(×)	요석공주와의 결연
(×)	설총탄생
(×)	세속거사 자칭
(×)	광대놀이 포교
저술	(○) 『화엄경소』 저술, 바닷용의 권고와 『금강삼매경소』 저술
해룡(海龍) 경전의 신이	(×)
(×)	입적
(×)	분황사 봉안

『송고승전』

『삼국유사』

『송고승전』과 『삼국유사』의 진술 사이에는 같은 승려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다. 『송고승전』은 원효가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요석공주와의 파계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삼국유사』는 원효의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측면을 부각한다. 그리고 원효와 요석공주의 결연과 설총의 탄생에 대해 극적으로 기술하여 한 자연인으로서의 원효를 부각한다.

누가 자루없는 도끼(여인상징)를 주려나

하늘 받칠 기둥을 짚어내려다.<sup>22)</sup>

원효가 이러한 시를 지어 부르며 여인을 찾아 거리를 헤맨 것을 보고 중국 승전은 그의 행동을 광언과 패언을 하며 폄행을 추스린 적이 없다고 비판한다.<sup>23)</sup>

그러나 일연의 시각은 다르다. 일연은 원효가 여인을 만나 민족의식에 투철한 설총을 낳은 사실을 원효 일생에서 획기적인 일로 귀하게 언급하고 그것을 『삼국유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킨다.

원효에게 있어서 성과 속은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 어느 사회나 비슷하지만 당시 신라 사회 역시 대립과 갈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부자와 가난뱅이, 귀족과 민중, 임금과 신하, 서울과 시골의 대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별의 개념은 세계의 대립상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효는 이러한 둘이 원래 하나의 혼용한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대립을 넘어서고자 한다. 원효가 여인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닌 것 역시 대립을 화합상으로 바꾸는 나름의 실천적 방법론이었다. 요석공주와 결연하는 것은 세속적 삶과 종교적 수행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민생(民生)의 속(俗)이 성(聖)과 더불어 하나라는 통찰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원효가 거사(居士)들과 더불어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른 것 역시 민중들의 삶, 허세가 없는 건강한 기층민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삼국유사』는 일연이 우리나라의 역사전통에 대해서 수렴한 선택적인 서사이다. 일연은 『삼국유사』 저술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한 선택과 표현을 통해 벌거숭이 민생이 가장 성스러운 생활의 원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22) 『삼국유사』, <원효불기>.

23) 『송고승전』 권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影印 文淵閣, 四庫全書, 子部 359, 釋家類

예가 원효의 경우이다. 일연은 원효 전기의 제목부터 <원효불기>라고 하여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원효를 사랑과 존경의 염으로 추모한다. ‘성사(聖師) 원효’라는 한마디 호칭이 일연의 응축된 마음을 담고 있다.

『삼국유사』<중생사>조는 점승(占崇)이란 무지문맹의 주인공을 내세운다.

다음은 명종(고려 19대왕) 3년, 즉 금나라 세종 즉위 13년(A.D. 1173)의 일이다. 그때 중생사엔 점승(占崇)이란 중이 주지로 있었다. 그는 문자는 해독할 줄 몰라도 그 본성은 순수하여 예불에 정근했다. 한 중이 있어 점승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친의천사에게 호소했다.

“이 절은 나라에서 은복을 기원하기 위한 곳이라 마땅히 글줄이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뽑아서 맡겨야 합니다.”

천사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점승이 과연 글을 읽을 줄 아는지 모르는 지를 시험해 보려고 경전의 해설문을 거꾸로 디밀어 주어 보았다. 점승은 받아서 물 흐르듯 읽어내렸다. 천사는 탄복했다. 법당에서 방으로 물러나와 앉아 점승으로 하여금 다시 읽어 보게 했다. 점승은 입을 다물고 한 구절도 못 읽었다. 천사는,

“그대는 실로 관음 대성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끝내 그 자리를 빼앗지 못했다.

당시 점승과 동거하던 처사 김 인부가 그 사실을 마을 노인에게 전해 주고 전기를 썼다.<sup>24)</sup>

점승은 무식하고 문맹이지만 그 본성이 순박하다. 유식하고 교활한 중은 점승이 맡고 있는 주지 자리를 간계로 뺏으려고 하지만 무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관음대성은 순박하고 착한 점승의 편이다. 별거승이 인간, 민생의 순박한 가치는 성스러움과 통한다.

『삼국유사』는 국가왕권에 대한 신화로부터 귀천, 빈부, 승속(僧俗)의

24) 『삼국유사』, 이동환 역주, <세 곳에 나타난 관음과 중생사>, 71-72면.

인간, 천지 자연, 신귀(神鬼), 용호(龍虎), 조수(鳥獸), 초목과 미물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이야기의 초점은 언제나 기층민들의 생활상을 발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일연은 전 생애를 무인정권의 무단과 대몽전란의 혼돈 속에서 보내어야만 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민족의 자주와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간절했다는 것은 자명하다.

『삼국유사』의 저술은 일연에게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되찾는 방법에 대한 고심과 다름 바 없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부인이 동해용왕에게 잡혀갔을 때, 부인을 구한 것은 ‘쇠도 녹인다’는 못 서민들의 뜻을 함께 하는 노래의 힘이였다.<sup>25)</sup> 일연은 구비전승 이야기들 속에서 서민들의 힘의 실체를 드러내는 모티프를 놓치지 않고 기술한다. 일연은 우리 민족의 원형적 저력을 원효처럼 구애없이, 점승처럼 착하게, 남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우는 고유한 전통, 정신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일연은 원효와 마찬가지로 계급과 가식을 벗은 민생의 모습에서 이렇게 성(聖)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다.

최제우는 서자인 자신의 신분에 의해 일찍이 계급사회와 인간생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겪었다.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 그는 길을 떠나 세상을 두루 겪으며 자기 길을 찾으려 고심하고, 13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36세에 고향에 돌아온다. 최제우는 오랜 방황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빈천한 백성이 스스로 자각하면서 새로운 도를 일으켜야 한다는 의식의 각성에 이르게 된다.

아버지 최옥은 고민에 찬 몰락사대부의 일생으로 점철하면서 끝내 입신양명의 꿈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제우는 아버지가 누린 학문적 능력, 사대부 집안 가통의 기득권도 상속할 수 없는 외로운 처지였다. 최제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 뿐, 그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처럼 좌절하지 않았다.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방책으로 ‘동학’을

25) 『삼국유사』, <수로부인>.

일으켰다. 동학경전과 천도교에서는 최제우를 종교의 교주로 숭상한다. 그에 비해 그의 고향 경주 월성에서 전승되는 설화는 최제우를 탁월한 능력을 지닌 민중의 영웅으로 묘사한다.

이야기는 지어내는 허구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의 핵심적 의미를 설득력있게 구체화하고 과장을 통해 진실의 소중한 측면을 특히 강조한다. 이야기는 최제우가 어떤 인물로 이해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다.

- (1) 아버지 최옥과 어머니 한씨 부인인 만나게 된 사연이 예사롭지 않았다.
- (2) 잉태되거나 태어날 때 이상한 일이 있어서, 비범한 인물이 될 조짐을 보였다.
- (3) 서자로 태어났으므로, 어려서부터 천대를 받으며 서럽게 자랐다.
- (4) 사방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하다가, 천서를 얻어서 술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 (5) 용마를 탔다고 하며, 용마 발자욱이 용담정 근처 바위에 남아 있다.
- (6) 여러 가지 신기한 술법을 부려서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 (7) 나라를 범하는 역적이라고 해서 잡아죽이려고 했다.
- (8) 잡으러 오니 여러 가지 변신을 다 하면서 피하고 잡히지 않았다.
- (9) 잡히지 않을 수 있었으나, 떠날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 잡혔다.
- (10) 잡혀가는 도중에 국상이 날 것을, 대구에 머무르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
- (11) 칼이 목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청수를 놓고 목념을 한 다음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 (12) 무덤을 쓸 때 목이 없는 몸둥이만 가져다가 묻었다.<sup>26)</sup>

구전 설화는 최제우가 탁월한 능력을 지닌 미천한 처지의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 미천함은 탁월한 능력과 놀라운 행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힘을 일으키게 된 근본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벌거숭이 인

26)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위의 책, 227면.



간 그 자체의 가치에 따라 평가받는 존재라는 점이 강조된다.

다른 모든 장식적 조건을 걷어낸 민생의 모습이 곧 성(聖)이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는 최제우의 이야기에서 구비전승자들의 각성된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 2) 재래신앙에 대한 존중과 인간존재의 신이(神異)

앞 항에서 민간 생활의 속(俗)이 곧 성(聖)과 하나라는 세 분 선각자의 통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그 속된 인간 존재가 스스로 하늘(天)을 체험하는 신이(神異)의 존재라는 민족의 오랜 신앙과 관련된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원효는 일찍이 산간과 절에서 벗어나 민간과 거리로 나섰다. 그의 교화의 현장은 상하와 원근이 없었다. 그래서 천촌만락을 떠돌며 노래하고 춤추며 사람들 속으로 다가갔다.

저 오두막집의 더벅머리 아이들까지도 모두 불타의 명호를 알게하고 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였으니 원효사의 포교는 참으로 크기도 하다.<sup>27)</sup>

원효의 수행은 도반이었던 의상과 대조적이었다. 의상은 중국 유학 뒤 태백산에 정착,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고 제자교육에 힘을 다하였다. 의상은 황복사에 머물러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탐돌이를 하면서 매양 허공을 딛고 올라가고 층계를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탐에는 사닥다리를 설비하지 않았다. 의상의 제자들 또한 계단에서 석 자나 떠서 허공을 밟고 돌았다. 그리고 의상은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이 것을 보면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테니 세상에는 가

27) 『삼국유사』, <원효불기>.

르치지 못할 것이다.<sup>28)</sup>

원효의 불법이 방방곡곡 오두막집 더벅머리 아이들에게까지 감화될 수 있는 쉬운 것이었다면 의상의 불법은 그의 제자들과만 교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널리 가르칠 수 없는 선택된 사람들만의 것이었다. 의상은 그의 불법을 닦을 사람을 구분하여 가르쳤고 원효는 우열과 대립적 구분을 넘어 평등과 화합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의상은 한 자리에 정착하여 제한된 사람을 만났고, 원효는 못사람을 두루 만나기 위해 전국을 방랑하며 낮고 먼 곳을 헤매었다.

원효 설화에 나타난 그의 일생은 신이로 거듭난 역사이다. 원효는 승려였지만 불승의 일반적인 수행 방식을 벗어나 스스로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깨달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세속적인 육체적 경험, 노래와 춤, 무애박과 함께한 교화, 천존만락을 떠돌며 체득하는 자연의 이법 등 원효가 걸어간 역정은 한 일정한 불도의 삶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었다.

신라사회는 삼국의 다른 나라보다 재래신앙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바깥에서 들어온 불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그것을 배척하지도 또한 종속되지도 않았다. 『삼국유사』 <원효불기>에서 원효사는 “바닷용의 권유에 의하여 노상에서 조서를 받고 「금강삼매경소」를 저술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재래 용신신앙과 교감을 나누는 원효의 모습을 일연은 소중하게 언급하고 있다. 원효가 배타적이지 않고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을 조화롭게 공존시킨 인물이라서 일연은 원효를 특별하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신라 선덕여왕(632-647) 때 만든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라고 의심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과학역사에서 천문대가 불교의 우주관인 수미산(須彌山)을 나타내거나 토속신앙의 제단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전통시대 천문(天文)의 뜻이 오늘날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물

28) 『삼국유사』, <의상전교>.

어보는' 천문대라고 한다.<sup>29)</sup>

이러한 견해를 존중해 보면 천문대는 하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제단이면서 재래 샤만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하겠다. 샤만은 그 스스로 신성을 체험한 절대적 신이의 존재이면서 범박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도자이다. 그 시대 원효는 한 가지 종교의 불승을 벗어나 첨성대와 샤만의 역할까지를 껴안고 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연은 원효의 이런 모습, 즉 재래신앙과 원용, 통합하는 정신을 용신신앙과 교류하는 모티프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원효는 자신을 깨뜨리고 떨어져 나가 원효가 아니고자 하였기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원효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부활한 원효를 통해서 우리도 자유로운 존재의 신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원효는 그가 체험한 원용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늘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일연은 『삼국유사』 <원효불기>를 기술하면서 그 자신이 원효처럼 원용한 자유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가 참으로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그를 제시하고 있다. 일연에게서 원효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일연은 원효처럼 승려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일연은 『삼국유사』 서문에서 “우리나라 삼국의 시조가 신이한 데서 출발했음이 무엇이 괴이한 일이라”고 반문한다.

민족의 고유한 주체성과 재래 토착 신앙에 대한 존중의 극치를 보여 준다. 그리고 이어 국가를 연 시조에서 불승, 개인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가 체험할 수 있는 신이의 과정을 풀어나간다. 원효의 전기를 기술한 태도에서 이미 알 수 있었듯 일연은 불승의 신이에 있어서도 재래 신령과의 교감을 더 우위에 있는 가치로 설정한다. 역시 『삼국유사』 <의해(義解)>부에 수록된 ‘자장’과 ‘원광’의 이야기는 중국 당나라 도선(道宣)이 찬술한 『속고승전』에 이미 실려 있다. 위에서 원효와 의

29) 문중양,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2006. 4.) 참조.

상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국 당·송의 『승전』에 기술된 신라승의 이야기와 『삼국유사』의 진술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 당의 『속고승전』은 645-665년 사이, 송의 『송고승전』은 988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6세기나 지나 완성된 『삼국유사』보다 ‘자장’이나 ‘원광’의 생애 시대와 일치하는 『속고승전』과 뒤따라 나온 『송고승전』이 고승들의 생애와 결부되는 역사적 신뢰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수이전』을 『향전(鄉傳)』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자료를 중국 『승전』과 더불어 인용하거나 출전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 고승담을 재구성하고 있다. 중국의 『승전』에서는 자장이나 원광, 원효와 의상 등 신라의 승려들을 거의 완벽한 성인으로 그려나간다. 그에 비해 『삼국유사』는 이들 고승들이 결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며 나아가 재래신앙의 신령스러움과 통하는 감응의 정서가 이들 생애에서 매우 소중한 체험인 양 다룬다.

당 『속고승전』과 송 『송고승전』을 저본으로 삼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토착 신령, 즉 여우 귀신이나 용의 보호와 같은 재래신앙 모티프는 중국 『승전』에서 일체 언급되지 않는다. 『삼국유사』의 고승, 즉 성인의 생애는 토착 신성과 함께하는 교감 과정이 서사를 엮어가는 큰 줄기가 된다. 한 사람의 승려는 재래 신성과 만나고 인식하며 결합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 성숙한 고승으로 자신을 갱신한다. 따라서 토착 귀와 신, 신령과의 해후 모티프는 불교와 비교하기 위한 포교적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신앙으로 제시된다.

『속고승전』에서 자장은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명승, 성인이 된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자장은 다시 만난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한 자괴감으로 그를 찾아 헤매다가 죽고 만다. 중국 『승전』에서 훌륭한 명승으로 부각된 ‘자장’이 이처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 차이는 『삼국유사』에서 추구하는 주제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의 앞 생애가 그토록 훌륭한 인물이 이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다면 『삼국유사』에서 일연이 제시하고자 하는 불교의 성인이란

무엇인가를 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속고승전』에서는 자장이 중국에 건너간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어나서 변두리 땅에 있으니 불법이 흥하지 않아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계승하여 받들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본국의 왕에게 그의 뜻을 아뢰고 서쪽 땅에 가서 큰 교화를 보고 오겠다 이룸.”<sup>30)</sup>

뒤이어 신라 불교의 한계를 절감하고 당나라에 들어온 ‘자장’이 구법 유학 뒤 귀국하여 한국 불교를 개편함과 동시에 중국의 제도 문물까지 신라에 도입한 과정이 소개된다.

그는 관습과 풍속과 복장이 중국과 다르다 하여 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오직 正朔을 숭배하였으니, 의리에 어찌 두 마음이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이 일을 상량하니 온 나라가 이를 받아들여 변방의 복장을 고치고 오로지 당나라의 의전에 따랐다. 그런 까닭에 해마다 여러 속국들이 모여 조공을 드릴 때 우리가 上番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관리를 임명하고 놀이를 하는 것도 모두 중국과 같이 하였다. 이 사실을 근거로 헤아려 본다면 고금을 통하여 그 예를 찾기 어렵다.<sup>31)</sup>

도선은 ‘자장’이 선도한 신라의 중국화에 대해 고금을 통하여 그 예를 찾기 어렵다고 감탄해 마지않는다. 이러한 논평을 통해서 『속고승전』이 신라 승려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읽어내게 된다. 이것은 완전히 중국문명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인의 관점에 의한 서술이 아닐 수 없다.

『속고승전』에서 ‘자장’의 생애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불도의 이상적 도정으로 펼쳐져 있다. 그에 반해 『삼국유사』는 ‘자장’이 평생을

30) 『속고승전』 권 24, 호법편, 唐新羅國大僧統, 釋慈藏傳.

31) 위의 책, <석자장전>.

통한 정진에도 불구하고 아상(我相), 즉 자기의 학문이나 지위를 자랑하여 남의 위에 있는 아집에 가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승려일 뿐이라고 뒤집어 보여준다. ‘자장’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과 첫 번째 만나 감응한 이래 귀국, 강릉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진다. 그리고 태백산으로 옮긴 후, 죽은 강아지를 담은 칩삼태기를 메고 온 남루한 노인이 곧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문수보살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자장’은 노인의 뒤를 쫓다 따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갑작스럽고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다. 남루한 노인은 자신을 ‘미치광이’로 밖에 알아보지 못하는 자장을 향하여 말한다.

“돌아가리рода! 돌아가리рода! 아상(我相)을 지닌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는가”<sup>32)</sup>

일연은 불교의 계율을 확정하고 중국 사대를 선도한 선구자였던 ‘자장’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장’이 우리나라의 고유신앙과 조우하는 모티프로부터 소외된 결과가 결국 이러한 결말을 초래하고 있다. ‘자장’은 생일도 석가모니의 탄강일과 같다고 서술되어 있다. 결국 그렇게 경화된 불교의 추종과 중국 사대는 아상(我相)에 갇혀 존재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듯 내 나라의 실체에까지도 무관심한 의식없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다. 『삼국유사』 <원광편>은 『속고승전』과 『수이전』, 『삼국사열전』, 『삼국사기열전』을 순서대로 인용하고 찬자의 논평을 붙여 마무리한다. 『속고승전』에서는 ‘원광’의 입당동기와 목표를 중국에 대한 상대적 부끄러움으로 비하한다.

도가와 유학을 섭렵했고 제자서와 사기를 연구했다. 문장의 재화(才華)가 삼한을 울렸으나 학식의 풍부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에 부끄러웠다.<sup>33)</sup>

32) 『삼국유사』, <자장편> 자장, 계율을 확정하다, 178면.

33) 『속고승전』, <원광편>, 원광 중국에 유학하다.

그리고 불문에 들어선 곳도 중국 땅에 건너간 이후로 설정된다.

그러나 당에서 불도를 닦은 이후 '원광'에 대한 서술은 매우 호혜적으로 변한다. 인간사를 끊고 선정에 들어가도 그의 명망은 넘쳐나서 구도자들이 고기비늘처럼 잇달았다고 한다. 『속고승전』과 『삼국유사』의 원광편을 비교해 보자.

『속고승전』	『수이전』 포함 『삼국유사』
1. 출신(朴氏. 진한사람)	(○) 출신(薛氏, 경주사람)
2. 자질	(×)
3. 입당동기	(×)
4. 불도귀의	(○)
5. 수행과 강론	수행
6. 불교 이적 발휘	(×)
(×)	* 신령과의 교유
(×)	* 신령의 도움과 입당
(×)	수행
7. 귀국 후의 활동	(○)
① 국왕의 우대	(×)
② 나라사람들의 추앙	(×)
③ 불교교화	(×)
(×)	* 신령과의 재회
(×)	①신령의 계를 받음
(×)	② 生生相濟 약속
(×)	③ 여우 신령의 현현
(×)	* 수나라 칭병
8. 입적(99세)	(○) 입적(84세)
9. 태사(胎死) 아이에게 내린 이적	(×)
10. 제자 원안(圓安)	(×)
11. 왕의 구병 이적	(×)
12. 후학 양성	(×)
(×)	『삼국유사』<열전> 원광의 세속오계
(×)	일연의 논(論)
(×)	* 원광의 허정(虛靜)한 성품
(×)	* 중국유학의 인도자

『수이전』을 포함한 『삼국유사』는 ‘원광’과 우리나라 토착 신령과의 교감을 강조하는 데 비해 『속고승전』은 찬자인 당나라 승려 ‘도선’, 즉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의 우월적 관점이 투사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 ‘원광’의 입당 동기는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삼기산(三岐山)에서 만난 우리 고유 신령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광’과 ‘신령’의 첫 번째 만남 이후, 지속적으로 원광과 신령 사이가 교감을 나누는 관계임을 강조한다. 『속고승전』에서 원광이 가장 빛날 때가 불교적 이적을 행할 때였다면 후자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신령과 접촉할 때이다. 그만큼 『수이전』을 포함한 『삼국유사』에서는 원광의 생애에서 토착신령과의 교감을 소중한 체험으로 제시한다. 원광이 신령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도 삼기산을 찾아 신령에게 그 간의 공부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원광은 재래 신령의 계를 받고 서로 상생하자는 약속을 한다. 『삼국유사』 <원광편>의 맥락은 중국과 불도를 내리고 우리 고유 신성에 대한 믿음과 인간본연의 신이한 능력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원효와 자장과 원광에 대한 일연의 기술에서 불도를 넘어 재래신앙에 기반한 초월적 인간 존재의 신이함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최제우는 원효와 일연보다 더 직접적으로 고난에 처한 인물이었다. 번민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열병을 앓는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가 마침내 득도를 했다 한다. 득도는 한울님과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sup>34)</sup> 신분적, 사회적 고난이 오히려 깨달음의 통로가 되어 사람이 하늘에 닿는 신이한 존재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제우는 종을 딸을 삼기도 하고 며느리로 삼기도 하였다.

수운 선생이 종을 딸을 삼기도 하고 며느리로 삼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는가 하고 물으니, 제보자 이원익은 그것은 천도교 역사에도 뚜렷

34) 몽중노소문답가, 신유년(1861).



이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말을 거들어서, 동학에 처음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서자였다고 했다.<sup>35)</sup>

인내천(人乃天)의 사상이 바로 이러한 실천에서 비롯한다. 최제우는 23세에 떠난 방랑길을 36세에 접고 돌아와 37세에 득도하고 동학을 편다. 그리고 3년 뒤 1863년 12월에 체포, 1864년 1월, 대구에서 처형되었다. 최제우는 빈천한 백성이 스스로 자각하면서 새로운 도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자각이 있으면 세상은 다시 개벽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개벽하면 빈천자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최제우는 인간 존재가 하늘이 되는 절대적 신이를 신내림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한 만치 민중이 각성하면 세상도 다시 열 수 있을 만큼 무한대한 힘을 신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예전에 그 키도 변대 채주가 원칸 과인이고, 팔도강산에 금강산이고 어디고 땀기며 명산대천이라 크는 데는 지정 안 올린 데 없고. 다 지정을 다리고 지정하고 그래 땀기다가, 거 천서를 얻기는 저 양산 통도 크 든가, 그 쪽 편에 어디 가가주고 천서를 얻었어. 하늘에 천서로 문서로 하나 얻어가. 그래가주 용담정이라고 어른 공부하든 제자 데리고, 글 갈치던 거와 가 자꾸 그래가, 그 문서 쪼가리를 보고 오우고, 정성을 다리고, 한머리는 빌고 그래 했다 그테. 그래가주 그 후 공부로 자꾸 하이, 도를 얻은 제가, 도통된 제가 열매 맺 해만이든동, 맺 달만이든동, 그래가 도통이 됐어. 도통이 돼가 천서로가 문답을 하고 그랬다 카년. 거 동경대전(동경대전)이라는 데 보면 그래 있고. 그래가 인자 발명(발명)이 됐는데, 그래가 병도 아픈게, 환자가 드가면 대반 다 낫고, 교만 믿고 하면 낫고 제자가 마마 항정도 없이 밀레 들어. 수수 백명 되고. 어디 조선 팔도에 천도교 앤 믿는 사람이 별반 없어.<sup>36)</sup>

그래서 최제우는 민중의 각성을 동학으로 집약, 민족사의 위기를 타

35)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7-1, 68면.

36)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7-1, 477면

개하는 활력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최제우의 시대는 앞선 두 인물에 비해 더욱 늦어 19세기 근대의 길목이었지만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우리’의 인식과 민중의 민생이 성(聖)과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과 계급을 초월한 인간존재의 신성한 능력에 대한 확신은 원효와 일연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민족자주에 의한 개혁정신이 아닐 수 없다.

#### 4. 맺음말

대구·경북 문화의 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방의 특성과 연원을 찾고자 하는 물음은 소박하면서도 절실했지만 그 해답은 이 글을 맺는 지금까지 제대로 맥락을 이었다고 하기 힘들다.

다만 이 글은 대구·경북 사람들이 구사하는 지방어가 형성된 배경이 있듯, 경쟁관계에서 보다 협동관계에 있을 때 더 신명을 내고 일을 도모하며 비밀을 갖기보다 벽을 헐고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지역 문화의 큰 줄기를 소급하여 따라가 보고자한 과정을 담고 있다. 그 방법론의 근거로 대구·경북권에서 태어나 다른 지방에 유례가 없을 만큼 큰 정신의 스승으로 받들 수 있는 인물을 추적, 원효, 일연, 최제우를 그 전범으로 삼아 설화와 행장, 비문을 중심으로 정신사의 원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인물이 신분적으로 변경지대에 처한 인물들로서 일찍이 나라를 깨고 ‘우리’로 다시 태어난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아가 서민생활의 소박하고 속된 모습이 곧 성(聖)스러움과 다르지 않은 우리 민족의 생활의 원형이라는 민족의식의 각성을 보았다. 또한 인간 존재가 경험적 세계를 초월할 때 하늘과 통하는 신이(神異)로 거듭나면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성찰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대구·경북의 문화적 토양은 바로 이러한 세 스승이 보여준 정신사의 전통이 면면히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과 인간존재에 대한 존중과 외경을 터득하고 있는 정신사의 흐름이 우리 지역 속에서 형성된 전통은 앞으로 대구·경북이 어디로 나아가야할 지 그 좌표를 밝혀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대구·경북의 문화원류를 찾는 공부를 계속하여 이 글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변경인(Marginal people), 벌거숭이 인간(naked humanity), 민중전승(folk transmission), 민중각성(awakening to the people), 공동체정신(collective spirit), 신이체험(supernatural experience)

### 참고문헌

자료:

道宣 撰, 『續高僧傳』,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

贊寧 撰, 『宋高僧傳』, 影印 文淵閣 四庫全書, 子部 359, 釋家類.

『삼국유사』

백순재 외, 『동학사상자료집』, (아세아문화사, 1979)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7-1 (경북 경주 월성편), (한국정신문화연구회 1980)

『천도교경전』, (천도교중앙총부, 1956)

논저:

고운기, 『삼국유사』2, (현암사, 2002)

김용갑, 『영남과 호남의 문화비교』 (서울: 풀빛, 1998)

- 김태영, 「일연의 생애와 사상」,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8, 2판) III-4-5
- 문중앙,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2006. 4)
-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2 (경남지역문학회, 1998)
- 『삼국유사』, 이동환 역주, (삼중당, 1993, 중판)
- 송성대, 「제주민의 海民정신」,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파피루스 1996, 제12판 1998),
-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서울: 지식산업사, 2002)
- 정병조, 『보살도의 숨결』, (대원정사. 1992.), 『한국 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대원정사. 1995) 일연편
- 조동일, 『지방문학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 창간호 (대구·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1)
- 『대구사학』 30 지방사 특집호 (대구: 대구사학회, 1986)
- 『삼국유사연구논선집(1)』, (백산자료원, 1986)

<Abstract>

The cultural origins of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seen in folk tales about historical figures.

Kang, Eun-Ha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port on the author's efforts to trace the main current of our regional culture, in which cooperative relationships rather than competitive ones have been more conducive to enthusiastic work, and the breaking down of walls rather than the keeping of secrets has been the key to forming collective relationships. This kind of cultural attitude may also be seen in the free use of dialect among the people of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On the basis of this methodology, I have examined the main current of our region's spiritual history focusing on folk tales, biographies, and epitaph inscriptions. Taking Weonhyo, Iryeon and Choe Je-u as the standard models, I have traced the lives of these personages born in the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region, who can be considered great spiritual masters without parallel in any other region of Korea.

As a result I discovered that these three historical figures, who were all on the margins of society in terms of their social status, broke down their ego-centered consciousness and were reborn with a communal consciousness from an early age. Furthermore, I also found that they experienced an awakening to the ethnic consciousness that forms the basis of the daily life of the Korean people and so became aware of the holiness of the unsophisticated, simple life of

the common people. I could also learn much from reflecting on the fact that when our human existence transcends worldly experience, we can be reborn and enter into an existence of eternal freedom through an experience of the supernatural realm, which communicates with heaven.

The cultural environment of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oday is without question the result of the accumulated spiritual history and tradition revealed in the lives of these three masters from the past. An understanding of this flow of spiritual history that embodies the collective spirit emphasizing "We" rather than "I", which holds human existence in awe and reverence, and has formed the tradition of our region, will provide the guidelines we need to go out into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o carry out further research. I now intend to continue conducting additional research from more varied perspectives in search of the cultural source of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order to supplement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article.

강은해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전화: 053-580-5105

e-mail: [ehk510@kmu.ac.kr](mailto:ehk510@kmu.ac.kr)

이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6월	30일	간행함